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관광경영	이름	이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Portland
파견대학	Portland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019.09~2020.03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도심가에 위치해 있고 국제학생들이 많아서 교내에서 인종차별이나 그런 문제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체로 분위기가 밝고 위치도 너무 시골이 아니어서 다운타운에 걸어가도 충분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아주 좋았어요.
2018-2학기 수업	Fall term BA 101-Intro BUS&WRLD AFF 경영학개론 같은 경영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수업으로 100명 넘는 학생들이 수업을 같이 들어서 대강당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한달에 몇 번 유명인사 초청 같은 강의를 있어요. 다른 과목 교수님들이 오시기도 하고 선배들이 강의할 때도 있었어요. 3-4명으로 교수님이 팀을 만들어 주시고 한 기업에 대해서 한 학기동안 조사하는 팀플이 있어요! 매주 과제가 있어 귀찮을 수 있지만 저는 좋은 팀원을 만나서 그런지 어렵지 않았어요. 시험 수준도 그냥 피피티 쓱 훑고 봐도 B+이상은 받는 것 같아요. 다만 피피티 양이 매우 많았습니다. WR115-Intro to college writing 에세이 쓰는 법을 알려주는 수업으로 한 쿼터동안 3번의 에세이 제출 과제가 있었어요. 내용을 점점 더 보완하는 식의 과제였고 마지막 과제는 워드 10장 정도 써야했기 때문에 마지막엔 좀 귀찮긴 했지만 교수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어렵지 않았어요. BA 213-Decision Making

	슈스터 교수 수업이었고, 과제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문제를 푸는 식이었어요. 한국으로 치면 원가회계 수업인데 내용은 되게 쉬웠고 시험도 어렵지 않았어요. 시험 전에 요점 정리된 서머리 주는데 그것만 다 알아도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시험은 총 3번이고 각각 30%씩 총 90%에 과제 10%로 성적이 나옵니다.
2019-1학기 수업	Winter term ACTG 360- management ACTG 슈스터 교수 수업이었고, 가을학기에 들었던 213 수업이 업그레이드된 수업이에요. 겹치는 내용이 좀 있긴 했지만 엄청 쉽진 않았어요! 213수업과 마찬가지로 시험이 총 3번있고 각 30%씩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시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ACTG 381- FIN/ACTG 켈리 교수 수업이었고 교수님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탄소리는 거의 안하고 수업만 하는데 수업이 지루하지도 않았고 교수님이 열정 가득이어서 진짜 제일 좋았던 수업이었지만 제일 어려웠던 수업이에요. 이 수업이 포틀랜드 주립대 경영대에서도 손꼽히는 어려운 수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이 사실을 모르고 수강신청 한 건데 참고하세요!!! INTL 321U- G&I Youth & POP CULT IN ASIA 이 수업은 요즘의 아시아 문화에 대해 나누는 수업이었어요. 첫 2주 정도만 교수님이 이론 수업을 하시고 나머지 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와서 각 주의 주제에 맞는 아시아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과 얘기하는 수업이에요. 학생수가 많지 않아서 오히려 더 좋았고, 주로 한국이나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수강해서 저도 너무 즐겁게 참여했던 수업이에요! 생각보다 KPOP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프로그램 운영	Fall term은 우리나라의 3월처럼 학기가 새로 시작되는 학기라 다양한 이벤트가 정말 많아요! 메일로도 정보가 많이 오고 학교 건물이나 기숙사 건물에 포스터도 많이 붙어있으니까 알아 뒀다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저는 초반에 이벤트들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지금까지 연락할 정도로 가장 친한 친구들이 되었어요!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공짜로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이벤트들도 많으니까 요긴하게 잘 알아서 활용하시길 바라요!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i>현지 기후 및 유의점</i> 겨울엔 비가 자주 오는 지역으로 한국 장마시즌 같은 비가 아닌 미스트나 약한 비가 주로 내립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많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적당한 날씨입니다. 제가 갔을 땐 겨울이 롱패딩을 입을 정도로 추웠어요. 가을 옷, 겨울 옷, 반팔 골고루 챙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	<i>현지 안전 상황</i> 길거리에 홈리스가 많긴 하지만 한국 노숙자들처럼 엄청 위협적이진 않았고 학교 내에는 가드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합니다. 늦은 밤에 혼자 다니는 것 빼고는 안전에 대해서 크게 무섭거나 위협적인 적은 없었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Ondine)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 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제가 살았던 온딘은 주로 신입생이 많이 살았던 기숙사예요. 가격도 두번째로 저렴했고 1층에 카페테리아도 있어서 밀플랜을 신청하신다면 따로 멀리 나갈 필요가 없어서 편리하실 거예요. 기숙사는 수업을 듣던 건물들과 걸어서 5분~10분 걸리는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고 주방과 화장실을 옆방 룸메와 공유하는 다소 독특한 방 구조였어요.

	궁금하시다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기숙사 도면 찾아서 보시는 게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단점이 있다면 주방이 세명이서 쓰기엔 너무 좁았고 냉장고도 한국 원룸에 있을 법한 조그마한 냉장고여서 룸메들이랑 쓰기엔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주로 신입생들이 많이 사는 건물이라 층장이 모임이나 게임을 주최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건 층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오래 된 건물이라 다른 새로 지어진 건물에 비해 구식이긴 하지만 저는 주방 빼고는 큰 불편함을 느끼진 못했어요.
식사	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0) 직접 요리 (0)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저는 거의 직접 요리해 먹었어요. 개인적으로 밀플랜은 가성비를 생각하면 별로지만, 자신의 귀찮음이나 편리를 돈과 맞바꿀 수 있다면 좋은 것 같아요! 베지테리언이나 비건을 위한 음식들도 준비 되어있고 대체로 비슷한 분위기지만 매일 다른 메뉴가 나옵니다. 저도 밀플랜은 신청하지 않고 몇 번 가서 먹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어요. 식료품은 체감상 한국보다 더 저렴하기도 했고 외식보다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자주 해 먹었어요. 특히 고기가 한국보다 저렴하지만 훨씬 맛있었어요. 닭가슴살 조차도 맛있었어요! 주변에 식당이나 푸드카트도 많아서 밖에서 사 먹어도 좋지만 메뉴가 비슷비슷해서 매일매일 사 먹기엔 질릴 것 같아요... 포틀랜드엔 맛있는 브런치 집이나 아시안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글맵에서 검색해 보시고 평점 좋은 데 다 가보세요! 그리고 맥스나 버스 타고 좀만 가면 H마트도 있어서 생각보다 한국 음식을 자주 먹을 수 있었어요. 엽떡 같은 떡볶이 집이 없다는 게 가장 아쉬웠지만 비버튼 쪽에 한국식 중국집도 있고 한식당도 있었어요!
교통	기숙사가 제가 수업 듣던 건물들과 걸어서 5~10분밖에 안 걸릴 정도로 가까워서 걸어 다녔고요, 포틀랜드에 맥스와 스트릿카라는 지상철이 잘 되어있어서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가 놀 수 있었어요. 백화점이나 카페들이 많은 도시 중심에도 걸어서 20분 밖에 안 걸릴 정도로 매우 가까웠어요. 스트릿카는 포틀랜드 학생이라면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 맥스는 한 번 타는데 2.5불이었어요. 한국처럼 환승 개념이 있긴 하지만 시간 제한이 있었던 거로 기억해요. 버스도 잘 되어있고 그린카 같은 서비스 이용료가 한국보다 더 저렴했던 거로 기억해요. 면허 있으시다면

	친구들과 교외로 놀러가보세요! 포틀랜드 교통은 뉴욕이나 엘에이와 같은 큰 관광도시만큼 잘 되어있어서 매우 편리했어요.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왕복 90만원대 (델타항공). 개인적으로 와이파이도 되고 기내 서비스가 나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델타항공 한국지사 상담을 이용하기엔 매우 불편했어요.	저는 미국 갈 때는 추가 비용을 더 내고 셀렉트 프리미엄 좌석을 이용했는데 장시간 비행할 때는 그냥 이코노미보다 훨씬 더 편하고 좋았어요. 제가 할 때는 3-5만원 정도만 추가로 내면 업그레이드가 가능 했었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보세요!
Fees	포틀랜드 주립대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3쿼터로 구성된 학교예요. 한 쿼터당 10주로 구성되어 있고 기숙사비를 포함해서 2000몇 불 정도 납부했던 것 같아요.	학교 보험을 들었다면 훨씬 더 비쌀 거예요.
보험료	저는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 갔고요 보험료를 1년치로 40-50정도 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보험사마다 천차만별일 테니 잘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개인적으로 학교 보험비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미리 보험을 들고 가길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보험 드실 때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insurance포기 조건을 꼭 확인하셔서 그 조건에 맞는 보험을 구입해 가져야 나중에 보험료를 안 내실 수 있어요. 출국한 뒤에는 보험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출국 전에 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숙소	한 쿼터당 1700불이었어요. Ondine이 학교 기숙사들 중 두번째로 저렴하기도 하고 혼자 사느냐, 룸메랑 사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학교홈페이지 기숙사 비용을 찾아보세요!	
식비	한달에 30만원정도로, 많이 드는	Oregon주는 텍스프리 지역이라

	편은 아니었어요. 한식도 많이 사 먹었고 과일 진짜 많이 사 먹었어요. 고기나 유제품 등 식료품이 한국보다 싸다고 느껴졌어요. 외식할 때도 너무 고급스러운 곳만 아니면 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서울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른 주에서 사 먹을 때 보다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었어요.
교통비	교외로 놀러갈 때 친구들이랑 우버비로 썼던 돈 외에는 대중교통비는 지내면서 5만원도 안 쓴 것 같아요.	
책값	종이책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ebook을 대부분 쓰는 것 같아요. 근데read only인 것조차도 저렴한 게 8만원대 이랬고, 과제를 하려면 이용해야 하는 사이트도 5만원 이상씩 돈을 내야 쓸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Ebook을 쓰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노트북을 갖고 수업을 들어요. 저는 아이패드가 있어서 가져갔었는데 매우 유용했어요.
기타1	보스턴 in 뉴욕 out 6박7일 (12월 중순) Total: 대략 1200불 이상 (약 150만원) 항공료: 왕복 360불 숙소: 대략 350불 (보스턴에선 게하, 뉴욕에선 에어비엔비) 뮤지컬:120불(알라딘이었는데 이 가격이 그나마 저렴한 금액이었어요) 나머지: 먹고 놀고 움직이는 데 370불정도.	저 포함 셋이서 여행을 갔어서 식비, 숙소비, 우버비는 셋이서 나누었고 쇼핑은 마그넷 하나, 장갑 하나 정도로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먹는 데에는 아끼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었습니다. 팁도 줘야 하고 택스도 붙어서 물가가 높았어요.
기타2	샌디에고in 엘에이 out 4박 5일 (2월 말) Total: 대략 920불 이상 (약 110만원) 항공료: 왕복 150불 숙소: 약 300불	샌디에고 숙소는 중심지에 있어서 너무 편리했고 LA에서는 한인 민박을 이용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은 친구 추천으로 고소공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해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샌디에고 스카이다이빙:179불 LA 조슈아 패키지여행:100불 나머지: 먹고 놀고 움직이는 데:191불	조슈아 패키지는 한인 패키지 여행으로 두박이가 가기 힘든 사막을 패키지를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LA에 한인 패키지가 많으니 잘 찾아보세요!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전 학교에 낼 아낄 수 있는 돈은 아껴서 차라리 그 돈을 여행을 가거나 다른 활동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료나 기숙사 비용 등을 미리 알아보고 좀 아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보험이나 기숙사 같이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학교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미리미리 잘 알아 가세요!

통신사 같은 경우는 한국 통신사는 장기 일시정지 시켜 놓고 갔고, 출국할 때 미국에서 개통하기 전에 당장 써야할 5일치의 여행자 유심을 인천공항에서 픽업하는 거로 사갔어요. 그리고 다운타운에서 눈에 잘 띄는 AT&T에 가서 무작정 유심을 샀었고, 한 달에 3만원 정도에 데이터도 아주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요금제를 썼어요. 중간에 아는 언니가 알려준 통신사인데 AT&T의 저렴한 버전으로 H2O라는 회사도 있었는데 만원 정도 더 저렴했고 국제 전화가 무료여서 한국 고객센터 등 카톡으로 전화할 수 없는 전화를 이용할 때 진짜 편리하고 좋았어요! 이 통신사는 따로 대리점은 없어서 타겟에 가서서 그냥 진열된 유심을 산 뒤 홈페이지에서 자기 정보 입력하시고 유심 정보 입력하시면 바로 개통이 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키가 작아서 미국에서 맞는 하의는 살 수 없다 생각해서 긴 바지는 한국에서 다 사갔어요. 미국에서 옷이나 화장품 쇼핑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 스타일의 옷이 없었고 한국 옷처럼 질 좋은 옷 사려면 한국보다 최소 2배는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이 아웃도어 브랜드 옷은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서 맨투맨이나 후드티를 더 많이 사 입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꾸미고 나갈 일이 없어요. 수업 들을 때도 다들 티에 바지 정도로 정말 편하게 들으러 오기 때문에 오히려 꾸미고 나가는 게 나만 꾸미고 간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편하게 입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그렇게만 다니다 보니 여행가서 입을 옷이 마땅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여행 계획을 세우고 오신다면 여행지 날씨에 맞는 옷을 미리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철 입고 버릴 옷을 들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귀국할 때쯤 짐이 너무 늘어나서 한 철 입고 버려도 안 아까운 옷들은 다 버리고 와서 짐을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이 밖에도 사오면 좋을 것들 검색해서 웬만한 건 다 사왔었는데 전 다 유용하게 잘 썼어요! 그리고 주변에 H마트가 있기 때문에 한식은 많이 안 들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한국보다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사 먹어도 좋아요! H마트에는 웬만한 양념장이나 김치, 과자 즉석 식품들은 다 있어요.

포틀랜드는 비가 자주 오지만 우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바람막이가 집에 있으시다면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우산도 가볍고 조그만 거 사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우산이 생각보다 비싸고 튼튼하지 않더라고요! 가방에 항상 넣고 다녀도 부담스럽지 않은 우산을 준비해 오세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3쿼터를 모두 마치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값진 경험을 얻어 너무 뿌듯하고 다녀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자기 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영어실력을 엄청나게 늘려서 오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고 다른 문화와 사람들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 보고 오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절대 외국인이라든가 다니거나 한국인이랑은 아는 척도 안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영어실력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늘거나 하진 않았지만 지내면 지낼수록 영어로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이 줄어들었고 일상적인 대화나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고 얘기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한국에서 듣던 영어 음원처럼 모든 미국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엔 말을 너무 빨리하거나 내가 익숙하지 않은 억양으로 말 할 땐 알아듣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완전 유창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대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회화실력을 갖춰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미국에 가서도 계속 영어 회화 공부를 했어요.)

저는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고 문화차이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당연히 여겼던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등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나 내 생각이 더

넓어졌다고 느껴요. 외국에 나가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을 마주하면서 내 한계를 마주하고 극복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정말 좋은 외국인,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서 좋았고 후회 없어요! 후회없이 놀았고 공부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와 생각해보니 더 놀 걸, 더 ~할 걸 등 아쉬운 점이 남긴 하네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고 오시길 바라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방 내부 사진이에요. 방 구조를 제가 좀 바꾸고 사진을 찍어 보았어요. 방 크기는 둘이 쓰기엔 문제 없었어요.



Max가 이렇게 지나다녀요.



제일 좋아했던 Waterfront Park예요.
기숙사에서 걸어서 한 15분 거리에 있고
사람들이 조깅도 많이 하고 산책도 많이
해요.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farmers
market이에요. 지역 특산물을 살 수
있어요. 캠퍼스 안에 열리고 동네
사람들 모두가 이용해요.



자주 가던 다운타운에 있는 카페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포틀랜드는 커피가
유명해서 카페도 많아요.

사진설명